

최진실 딸 최준희, 골반뽕 실토 "뼈말라 단점 딱 하나"

등록 2026.06.02 08:49:07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모델 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체형 보안을 위해 골반 패드를 쓴다고 했다.

최준희는 1일 인스타그램에 "뼈말라 단점 딱 하나 찾았다"며 "골반뽕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말했다.

최준희는 이 말과 함께 올린 영상에서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과 춤을 췄다.

앞서 최준희는 키 170cm에 40kg대 초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었다.

최준희는 과거 루푸스병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을 몸무게가 96kg가 됐다가 이후 운동과 식단 관리로 감량에 성공해 주목 받기도 했다.

2003년생인 최준희는 배우 최진실 딸이다. 최진실은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최준희는 지난달 16일 11살 많은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다.

최준희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신혼여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